<교육실습 소감문>

지난 4월 29일을 끝으로 짧았던 한 달여간의 교생실습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실습을 나가기 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 학생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날도 많았는데, 항상 세심한 배려로 지도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한 교생 선생님들, 담당 학급의 학생들 덕분에 즐거운 추억을 가득 안고 대학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실습에 앞서 그 이전 주 금요일에 가락중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지도해주실 교생 담당 선생님과 학급 담임 선생님, 교과 담임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실습 기간의 일정과 유의사항에 대한 공지를 들었습니다. 첫 주에는 학교의 각 부서에 대한 소개를 듣고, 둘째 주부터 참관과 수업 시연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도덕 과목을 맡았고 학급 지도는 2학년 5반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첫 주에는 주로 교장·교감 선생님과 각 부 부장 선생님들께 교육의 방향과 교육 지표, 교사의 사명과 근무 자세, 각 부서의 담당 업무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연구부장 선생님께서는 가락중학교가 교과교실제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수업 중에 터치스크린을 사용해야 해서 수업 시연 때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칠판이 터치스크린으로 바뀐 것도 새로웠지만 학생들이 과목별로 전용 교실을 찾아 이동하면서 수업을 듣는다는 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첫 급식을 먹고 급식지도를 하면서 처음으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의 풍경과는 많이 달라진 듯해서 중학교 졸업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특히 1학년생들은 아직도 초등학생처럼 떠들고, 교생선생님들에게도 배꼽 인사를 하고, 잔반을 제대로 모아서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 참 귀여웠습니다. 품이 큰 교복을 입고 쭈뼛쭈뼛하면서 어색하게 쳐다보는 학생들은 저의 중학교 때랑 비슷해서 어딘지 웃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작았던 학생들이 커서 3학년생이 된다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각 부 부장선생님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쉬는 시간에는 수업 시연의 지도안을 구상했습니다. 대학에서 관련 교과를 복수전공하지 않고 교육학에만 집중해서인지 어떤 내용을 강조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는 실제 수업을 참관하면서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교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돌발 상황도 고려하면서 깊이 고민해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교과서나 지도안만 들여다보아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의 수업을 참관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 너무 시끄러워서 선생님의 통제를 벗어난 반, 교과 내용이 어려워서인지 학생들이 건성으로 수업에 임하는 반 등 다양한 형태의 학급이 있었고 카리스마 있는 선생님, 나긋나긋하고 학생들에게 칭찬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 농담을 많이 하셔서 재미있게 가르치는 선생님 등 다양한 성격의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수업을 참관하면서 제가 담당할 1학년 학생 대상의 수업은 강의보다 학생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구상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나치게 활발한 반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습 기간에 참관했던 수업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은 국어 수업과 음악수업이었습니

다. 국어 선생님은 밝은 모습으로 학생들과 편하게 소통하시면서도 학생들의 잘못에는 따끔하게 야단을 치시는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목소리도 크고 수업 내용도 재미있어서 저도 학생들처럼 수업에 푹 빠져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참관한 다른 교생 선생님은 수업이 너무 재미있어서 교생이라는 것도 잊고 수업 중에 손을 들고 발표할 뻔했다고 말해서 다들 웃었습니다. 국어 수업이 이상적인 수업 형태로서 기억에 남는다면 음악 수업은 이상적인 선생님의 지도 때문에 기억에 남습니다. 단소 수업이었는데 교실에 선생님이 두 분이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단소로 친구에게 장난을 치는 등 교실 정돈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였다면 수업을 포기하고 적당히 시간을 보냈을 텐데 음악 선생님은 끝까지 학생들에게 나쁜 말 한 마디 하지 않으시고 좋은 말로 타이르셨습니다. 장난치는 학생들도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 일일이 주의를 주시면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끈기와 인내심이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3주차부터는 직접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심한 성격이라 연구 수업만은 맡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 제가 대표 교생이 되고 연구 수업도 맡게 되어서 부담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수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먼저 영상을 보면서 강의를 들은 후 직접 두 가지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활동은 '나의 묘비문 쓰기'입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이지만 삶의 목표를 고민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활동을 구상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나의 장례식에 친구 초대하기'였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주변 친구들을 통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이를 참고하여 도덕적인 인격을 갈고 닦을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계획한 활동입니다. 그런데 수업을 시작하고 보니 수업 내용 자체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부각되었습니다. 우선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학생들이 저에게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성량의 문제는 사실 대학에서 발표를 할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야만 하는 순간에도 제 목소리가 제 마음대로 나오지 않아서 너무 속상하고 답답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보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발표하면 보상으로 과자를 주었는데 그 자리에서 먹지 말라고 주의를 주지 않았더니 수업 중에 친구들과 나누어먹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연구 수업 때에는 이를 보완하여 마이크를 사용하였고 교생 담당 선생님이 미리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셔서 무탈하게 수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배려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1주차부터 3주차까지의 생활이 비교적 여유로웠던 반면, 실습 마지막 주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1주차에 예고하신대로 교생 선생님 1명 당 교과교실 2학급을 맡아 환경미화를 하였는데 모든 과정이 온전히 교생 선생님들에게만 맡겨져 있다 보니 물품 준비부터 구상, 시행까지, 해야 하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담당 학급인 2학년 5반의 도덕 교실과 2학년 9반의 수학 교실을 맡았습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에는 욕심을 부려서 다양한 콘텐츠를 넣고 예쁘게 꾸미려고 했는데 제 실력이 생각보다 너무 부족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다음 주에 학생들이 수련회를 다녀와서 달라진 교실 풍경에 실망하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쓰고 보니 학생들과의 추억은 의외로 별로 없는 것 같아 많이 아쉽습니다. 1주차에는 조회나 종례를 하지 않아서 학생들의 얼굴도 몰랐고 2주차부터 교실에 들어갔는데 용기가 없어서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3주차에 반 아이들 얼굴이 조금 익숙해지니까 중간고사와 수련회로 다시 담임선생님이 조회와 종례를 맡으셔야 해서 저는 뒤에서 참관만 했습니다. 재미있었던 것은 실습 마지막 날 학생들에게 간식을 나누어주니까 그제야 저에게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어린 학생들은 간식이 최고인가 싶어서 웃기기도 하고, 저를 본체 만 체하던 학생들이 오히려 실습기간이 끝나니까 '선생님 다음 주부터 교실에 없느냐'고 슬퍼해서 저까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리고 담당 학급 학생은 아니지만 급식 지도를 같이 한 인진 학생 덕분에 매일 30분가량의 급식지도시간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인진이는 교생 선생님들이 장난을 치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고 대답도 제대로 못했는데, 다들 그 모습이 재미있어서 좀 짓궂지만 계속 놀리곤 했습니다. 한 번은 학생들과 친해질 요량으로 급식 지도를 하면서 학생들 모두에게 잘 가라는 인사를 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인진이에게 '선생님 혼자 인사하니까 너무 목이 아프고 부끄럽다. 인진이도 같이 하자.'고 했더니 인진이가 자기도 창피해서 못하겠다고 하면서도 정말 수줍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같이 학생들에게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3학년 형들한테는 "잘 가"라고 못해요. 반말하면 안 돼요.'라고 말하는데, 귀여워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저까지 순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교생생활을 함께 한 다른 선생님들과도 많이 친해졌습니다. 다들 나이도 비슷하고 유쾌하셔서 격의 없이 편하게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습을 마치고 소감문을 쓰면서도 아직까지 교생실습이 끝났다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습니다. 벌써 4학년이고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교사'라는 직업도, '선생님'이라는 호칭도 저와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대할 때에도 '선생님'으로서 의식적으로 모범을 보이기보다 친한 동네 누나, 언니, 중학생보다는 나이가 많은 '학생' 같은 솔직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사실 스스로가 남에게 좋은 모습만을 꾸며내서 보이기에는 부끄럽고 부족한 면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단점까지 감싸 안아 준 가락중학교의 모든 선생님, 교생 선생님, 학생들이 그립고, 지금은 다시 한 번 교생실습 첫 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